

121. 도색작업자에서 발생한 부정맥, 기질성 뇌증후군

성별	남	나이	48세	직종	도색작업	작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	-------	----

- 개요:** 신OO(남, 48세)은 1981년 2월 선박건조업체인 D조선해양(주)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을 하였고, 1993년부터 폐기물 수거를 위한 덤프트럭 운전작업을 하였으며, 1998년부터 폐기물 수거통 도색작업을 하였다. 2002년 9월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.
- 작업환경:** 신OO은 1981년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을 하였고, 1992년 11월부터 폐기물 운반을 위한 트럭운전을 하였고, 1998년 6월부터 폐기물 수거통 도색작업을 하였다. 폐기물 수거통의 도장작업은 옥외에서 시행되고 칠은 2-3회 하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작업량은 하루 10-20개 정도였고 작업이 없는 날도 있었다. 한달에 15일 이상 도장작업을 하였고 오후 5시까지 작업하였다. 도장 작업이 없을 때는 순찰 작업을 하였다. 일일 페인트사용량은 10ℓ 이고, 도색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었다. 페인트종류는 에나멜페인트 및 신나를 사용하였다.
- 의학적 소견:** 신OO은 1996년 12월 덤프트럭을 정비하던 중 부상을 입어 1997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하고 1998년 6월 복직하였다. 복직 후 도색작업을 하였는데 도색작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뒤부터는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고, 3-4개월 후부터는 페인트를 많이 마실 경우 메스꺼웠으며, 작업을 쉬면 좋아졌다. 1998년부터 거의 매일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였다. 2002년 1월 15일 도색 작업 후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면서 슬관절과 견관절 부상을 입고 B병원에 입원하였다. 과거력상 심부정맥이 있고 심부정맥으로 인해 주관적인 증상을 느낀 적은 없고 단지 약물복용 지시가 있어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다. 흡연은 23-24세부터 하루에 한 갑 정도였고, 음주력은 소주 1병을 한 달에 2-3회 마시는 정도였다.
- 고찰:**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작업은 도장, 인쇄, 도료제조 등 다양한데, 스프레이 도장공은 지속적인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신경정신 장애가 많으며, 특히 선박제조업의 도장작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할 때가 많아 신경정신 증상 발생률이 높고,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서는 만성독성뇌병증의 보고가 많다.
- 결론:** 신OO은
 - ① 1981년 D조선해양(주)에 입사한 후 1988년부터 도색작업을 하다가 유기용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, 2002년 9월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었는데,
 - ② 심부정맥은 1995년부터 의무기록에 진단되었던 것으로,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
 - ③ 도색작업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공기중 유기용제 노출수준이 낮았고, 상기 근로자의 도색작업은 비연속적인 옥외작업으로 유기용제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